

#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 교사·학생 모두 '근심'

### 진로·적성 따라 과목 선택·이수 비인기 과목 소외... '순회' 우려 학점 미이수 시 졸업 불가도 "학생 책임 강화, 스스로 인지해야"

내년부터 광주·전남지역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입시 과목에 미해당된 교사들은 수업시수가 줄거나 순회교사로 내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점 미이수로 인해 제때 졸업하지 못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25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내 224개(광주 67개교·전남 157개교)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 이 아닌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제도로 과목 이수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면 졸업이 결정된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에서 소외될 경우 수업시수를 맞추기 어려워 타 지역으로 보내지거나 지역교육지원청과 거점학교에 속해 여러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교과전담 순회교사'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가정', '음악', '미술' 등 대학 입시와 다소 거리가 먼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수

강 신청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희망하는 수업을 수강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입시'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상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수능 위주의 교과목으로 선택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포의 한 고교에서 '중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모(39)씨는 "제2외국어 같은 과목보다는 대입과 관련한 과목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퇴근 후 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관련 수업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고등학교 순회교사는 광주 60명, 전남 15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순회교사로 근무해도 학교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반면 전남의 경우 거리가 멀어 순회교사를 더 기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남 지역 고등 순회교사의 담당 과목은 미술(19명), 체육(18명), 진로(17명), 음악(14명) 순으로 입시와 직결되지 않은 소수과목 담당교사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등 순회교사도 총 573명으로 이들의 담당 과목은 음악(83명), 기술·가정(75명), 미술(72명), 도덕(71명) 인데 반해 국어(4명), 과학(14명), 영어(15명)으로 크게 차이 나고 있어 고교학점제로 학생 선택에 따른 정원 감축을 우려하는 상황이

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만큼 대학생처럼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선택,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미이수' 학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4년까지는 각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별로 출석률 뿐 아니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비시행인 고교학점제는 학업성취율을 채우지 못해도 학생들이 낙제되지는 않았지만 전면시행될 경우 미이수 학생은 별도 과제 혹은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이수 학생은 졸업을 못하고 낙제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수업시수가 학교에 따라 한 학교는 18시간이라면 다른 학교는 20시간일 수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순회·겸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업시수가 크게 달라진 않을 것이다"며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생 책임이 강화됐고 미이수 학생에게는 교사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학업성취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예방제도, 계절학기 등 부족한 학점을 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쓰레기로 뒤덮인 공중화장실  
광주시내 근린공원에서 야간 운동을 즐기는 광주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려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양배 기자

## 유흥가 '이권 다툼', 도심 흥기 난동 50대 징역 22년

### 흥기 찌르고 비틀어... "고의 인정"

광주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도심 한복판에서 흥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만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B(44)씨와 보도방 업자 C(46)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는 살해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20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진입을 막고 다른 업자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경쟁 보도방 업자를 신고를 하며 A씨의 알력 행사에 대응했다.

사건 당일에는 이들이 유흥가에서 '불

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자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미리 준비한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3시간 전 미리 흥기를 구입하고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았으며 B씨의 다리를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베인 것일 뿐 의도해서 비튼 것이 아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주장 역할을 맡고있는 A씨가 피해자들이 보도방 업자들을 신고하고 '성매매 근절' 집회를 진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 뒤에도 허벅지를 찌르고 비틀어 동맥까지 절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점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